연극무대서도 아줌마 파워 보여줄래요

‘앨리스줌마들’ 2기, 11월 ‘에어플레인’ 공연
‘여배우 봄날씨’ 문화중심 추진단 프로 참여
극단 ‘청춘’도 이달부터 주부 극단 운영 예정

잠재된 끼를 발산하는 주부극단들의 활약이 지역 문화계를 살찌우고 있다. 사진은 푸른연극마을이 운영중인 주부극단 ‘앨리스줌마들’ 공연 모습.

조금은 어색하지만 열정만은 가득했다. 난생 처음 읊어보는 연극대사가 쑥스럽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어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기분은 그만이었다. 무엇보다 대본 내용이 남편과 자식, 사랑, 꿈 등 ‘자기들의 이야기’ 였기 때문에 연습 중간 중간, ‘현재의’ 자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지난 5일, 유·스퀘어문화관 연습실에서는 열린 주부극단 ‘앨리스줌마들’ 2기생의 첫번째 대본 연습 풍경이다.

문화계에 아줌마 파워가 거세다. 주부 연극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문화적 향기로 채우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

‘앨리스줌마들’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과 함께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푸른연극마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자기로의 여행을 떠난다는 뜻’에서 ‘앨리스줌마들’이라고 이름부친 주부극단은 지난해 첫번째 공연을 마쳤고, 올해 두번째 무대를 준비중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6명. 첫 만남이 있었던 지난 5월 이후 주부들은 상황극, 몸풀기 등 다양한 연극놀이를 통해 우선 연극과 친해졌다. 특히 주부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내면에 뭉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들이 오는 11월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에어플레인’이다. 지난해 참여한 주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함께 대본을 쓴 작품으로 이번 2기 참여자들이 이야기의 살을 보태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예작가로 활동중인 최명순(53·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젊었을 때부터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표출하고 싶었는데 연극이라는 장르가 그런 매력이 있어 참여하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일곡도서관에서 만난 인연으로 뭉친 주부연극 모임 ‘여배우 봄날씨’의 활동도 눈에 띈다. 극단 신명 출신의 추말숙씨와 함께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은 닐 사이먼의 ‘사랑을 주세요’ 등을 무대에 올리며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지난 3일 진행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에 참여,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다. 단워들은 공모를 통해 당선된 극단 ‘뛰다’와 호주의 인형극단체 ‘스너프 퍼펫’의 협력 작품인 ‘쏭노인 퐁당던’에 지역 시민배우를 대표해 참여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을 위한 연극모임 등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극단 청춘(cafe.daum.net/cctheater)도 9월부터 아줌마 극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전남 지역 주부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청춘이 운영하는 ‘예술극장 통’에서 진행된다.

광주북구문화의 집과 북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주부가 달린다’는 북구지역 주부들이 문화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나선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중인 주부들은 모두 30여명. ‘북구 유휴공간 문화공간화 팀’은 직접 못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 연제동 주공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일부분을 ‘멋진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더부러 작업실’이라는 문패를 단 이 공간에서는 재활용품 만들기, 수제종이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야기 발굴 문화콘텐츠팀’은 삶 속에 스며든 전라도 사투리를 발굴하고 있다. 경로당가 재래시장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다양한 전라도 사투리와 그 속에 담긴 삶과 이야기를 수집·기록하고 어른들이 직접 쓴 손글씨를 모아 디자인화 하는 작업도 모색하고 있다. 그밖에 ‘문화공헌사업팀’은 연극과 난타를 결합한 공연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재화가 故 손상기를 추억하다

‘시들지 않는 꽃’전 16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

천재화가 고 손상기(1949~1988·사진)씨의 작고 23주기를 맞아 고향 여수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다.

‘화가 손상기 기념 사업회’(공동 상임 대표 김홍용·오병종)는 오는 16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시들지 않는 꽃’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7년 이후 고향에서 열리는 두 번째 유작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손상기 화백이 남긴 1500여점 가운데 대표작과 미공개작 등 9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손상기는 신체의 장애와 가난 속에서 동시대의 풍경을 그리다 요절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툴루즈 로트렉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로트렉’이라고 부른다.

장애(척추만곡증)와 가난에 시달린 손씨는 서울 아현동 월세방에서 1980년대 도시 빈민과 노동자, 달동네 풍경과 신촌 부근 사창가 여인네들을 그려 화단에서 주목받았지만 고향에서는 작품세계를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지난 1981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중앙미전, 구상전 등에서 수상했고, ‘문제작가전’, ‘해방40년 민족사전’, ‘30대 기수전’ 등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시들지 않는 꽃’은 작가의 동명의 작품 제목에서 따왔고, “장애를 앓고 있는 나는 이미 시들어버려서 더 이상 시들지 않는다”는 작가의 평소 생각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일몰’

한편 지난 2일에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회장 서성록) 주최로 이석우 겸재정선기념관 관장, 서영희 홍익대 교수, 김진엽 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고인의 예술 세계를 조명했다. 문의 061-683-06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간과 유령, 그 기막힌 동거

‘고스트’ 25일까지 우체국보험회관 기분 좋은 극장

코미디 연극 ‘고스트’가 오는 25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우체국보험회관 16층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희극 작가 노엘 카워드의 대표작 ‘유쾌한 유령’을 각색한 ‘고스트’는 소설가가 두 아내와 동거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별후 재혼한 두번째 부인 성희와 행복한 살고 있는 미스터리 소설 작가 상현은 구상중인 심령 추리소설에 필요한 소재를 얻기 위해 무당 ‘옥보살’을 집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옥보살의 실수로 상현의 첫번째 부인 샛별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남편을 독점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샛별, 자신의 눈에는 샛별이 보이지 않는 터라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성희,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데….

배우들의 능청스런 연기와 속사포 같은 대사, 그리고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는 멀티맨이 웃음폭탄을 선사한다. 김지훈·정성희·박상현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총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문학·국악·패션 등 다양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제19회 광주예총시민예술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두 20차례로 진행되는 강좌는 문학, 국악, 여행, 판소리, 패션, 건축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아우른다.

강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4일(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아모레퍼시픽 3층 강당에서 열리며 접수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다.

강사로는 은미희(소설가), 도용복(오지체험가), 김유미(광주시립무용단장), 전명옥(서예가), 조통달(국악인), 박계배(한국연극협회 이사장)씨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의 전에는 30분 다양한 장르의 레크리에이션도 즐길 수 있다. 무료.

문의 062-528-9207~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